부탄불교계, 印부다가야서 평화법회

부탄 특유 작법무도 선보여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세계의 평화를 비는 연례 기도회가 부탄 불교계에 의해 봉행됐다. 1월 13일 '로이터 통신'은 인도 부다가야에 소재한 툽땐쵤링 사원에서 봉행된 기원법회의 모습을 보도했다.

툽땐쵤링 사원은 부탄 왕실이 후원하여 건립된 사원으로, 성도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에 세워진 해외불교계 사찰 중 자국 승려가 상주하며 자체적인 강원을 운영하는 소수의 사원 중 한 곳이다. 툽땐쵤링 사원은 매년 초 3일간 전통적인 작법무와 함께 괘불을 공개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쩨추'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부탄불교에서 봉행하는 쩨추법회는 부다가야에서는 이미 연초의 특별한 법회로 자리잡아 세계각지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과 현지 불자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올해의 법회는 예년에 비하여 축소돼 봉행됐으며, 대중스님들만 모여 기도를 진행했다.



마당에서 작법무를 추고 있는 스님. 사진출처=툽땐쵤링 페이스북

법회 첫날 새벽 3시부터 시작된 법회는 먼저 부처님과 호법신들의 가피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됐다. 툽땐쵤링 측은 "이 기도는 일체중생의 건강과 자연의 조화롭지 못한 요소들을 진정시키길 기원하는 기도"라고 밝혔다. 또한 "건기라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겨울임에도 법회의 첫날인 오늘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 아마 법회가 원만히 회향될 것을 보이는 길조일 것"이라고 전했다. 새벽부터 이어진 기도는 이윽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작법무로 진행됐다. 사원의 마당에서 봉행된 작법무는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선한 공덕을 불러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쩨추법회는 삼일 간 새벽부터 기도가 이어지고, 낮에는 작법무가 봉행됐다.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 응한 툽땐쵤링의 사무장 소남 도르제 스님은 "작법무를 위해 호법신으로 분장한 스님들은 춤을 추는 동안 불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진다. 불보살들의 춤을 보여줌으로써 분쟁과 고난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작법무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우리들 자신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다른 세계들을 평화롭게 하겠는가. 우리들이 먼저 평화를 추구하고, 또 평화를 위해 타인을 돕는다면 모든 세계가 진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향일인 3일째 오전, 툽땐쵤링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작법무중 가장 규모가 큰 '구루짼걔' 춤을 중계했다. 구루짼걔는 티베트와 부탄에 불교를 전한 스승 파드마삼바바와 그의 여덟 화신의 춤으로, 이 춤을 보는 이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고, 춤이 봉행된 장소는 정토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대중이 사원에 모이지 못한 것을 배려한 것이다.

법회가 모두 끝나고 대중스님들은 마지막 회향을 위해 2층 높이의 자수괘불 두 점을 사원 외부에 걸어 대중에게 공개했다. 사원측은 "법회의 마지막날 공개되는 괘불을 멀리서만 보아도 훗날 성불하는 종자를 심는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두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며 기원했다.

인도, 불교 순례 관광열차 개발 추진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제 관광 재개 상황 대비

인도 정부가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기차 여행인 '불교 순례 관광열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전 세계 불교도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동남아시아의 여행 관련 매체 TTRW(TTR Weekly)는 1월 19일(현지시간) "인도 관광부처는 지난 주말 개최한 웨비나에서 주요 안건으로 인도의 불교 서킷을 순례하는 기차여행에 대해 논의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이 지나가고 국제 관광이 재개되면 기차 여행을 홍보하는 한편, 인도 불교 유산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했다.

이날 웨비나에선 기차여행의 목적지인 각각의 불교문화유산들에 대한 정보 제공 외에도 인근 숙박 정보, 기차여행과 관련한 최신 정보 등 여행 정보를 소개했다.

이번 안건을 제안한 시리 아룬 스리바스타바(Shri Arun Srivastava) 관광부 차장은 "인도의 불교 관광 유산은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불교도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인도에는 부처님의 삶과 관련된 여러 성지가 있다. 인도 불교는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전통과 관습의 중요한 근원이자 영감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TTR Weekly

안건 발표를 맡은 인도철도운송관광공사(IRCTC) 공동 총괄책임자인 아얏트 싱하(Achyut Singh) 박사는 "IRCTC의 불교 순례 관광열차는 석가모니 부처님 삶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며 "부처의 삶과 가르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장소들을 포함해 불교 역사상 가장 숭고한 장소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리 박사는 인도 국경을 넘어 네팔에 위치한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도 불교 순례 관광 열차 코스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룸비니에 위치한 고대 불교 사원인 마야데비 사원(Mayadevi temple) 등에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는 게 인도 관광당국의 설명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1300년 전 고대 목조탑 사부대중에 개방

日 나라市 야쿠시지 사원, 10년 복원 끝에 동삼층불탑 공개

일본 최초의 수도 나라(奈良)시에 위치한 불교 사원인 야쿠시지(Yakushi-ji)는 10년 만에 복원에 성공한 고대 동(東)삼층불탑을 대중에 공개한다.

1월 8일(현지시간)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 외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국보로서 1300년 전 조성된 해당 삼층불탑은 오는 3월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사부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부분 공개된다. 당초만 해도 지난해 5월 개방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으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사찰 측은 현지 매체들을 통해 "개방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불탑의 단상에 올라 탑의 중심부와 화려하게 장식된 천장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방기간 전까지는 철저한 출입 통제가 이뤄질 방침이다.

야쿠시지 사찰은 덴무 천황(631년~686년) 시절인 680년 그의 병환을 회복하기 위해 나라시에 세운 7대 사찰 중 하나로, 4세기 인도 무착 스님에 의해 시작된 일본 대승불교 종파인 유가행파 중 법상종의 본원 사찰이다.



야쿠시지 동삼층불탑 전경. 사진출처=재패니즈타임즈



동삼층불탑 상단의 청동 구조물. 사진출처=야쿠시지 사찰 홈페이지

이 사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대 나라의 역사적 기념물을 구성하는 8개 유적지에도 포함된다. 973년경 화재로 사찰 터 대부분이 소실되고 1528년 대웅전이 소실됐으나, 이후 사찰 전체가 완전히 복원됐다.

높이 33.6m의 삼층탑은 730년에 건립된 것으로, 1300년 전 사찰이 창건된 이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약 110년 만에 최초 모습을 되찾았다. 부디스트도어는 해당 탑을 "일본 최고의 탑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표현했다.

해당 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당시 최첨단 공법으로 제작된 6개 층의 꼭지장식이다. 어니스트 페놀로사(1853~1908) 도쿄제국대학 일본미술사학 교수는 교차하는 구조의 독특한 꼭지장식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학적 리듬과 탑의 건축적 균형미를 극찬하면서, 탑을 "결빙된(고체화된) 음악"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해진다.

또 탑 상단의 청동 장식물은 천상의 인물이 춤을 추고 피리를 부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탑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다.

한편 나라시는 710~794년 나라 시대에 천황들이 머물던 곳이다. 이후 일본의 수도는 교토에서 도쿄로 이전됐다. 나라시에는 593년 완공된 간고지(Gangō-ji), 일본 법상종의 대본산으로서 669년 설립된 고후쿠지(Kōfuku-ji), 738년 창건돼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인 대불전을 보유한 도다이지(Tōdai-ji), 율종의 총본산으로서 759년 창건된 도쇼다이지(Tōshōdai-ji) 등 역사적으로 진귀한 불교 사찰들이 즐비해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호우로 유실된 관음상, 반년 만에 환처

지역주민들 "매일 기도하겠다"

폭우로 유실되었던 관음상이 반년만에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난 1월 17일, 일본의 '쿠마모토 신문'은 기적적으로 돌아온 관음상의 이야기를 특별 보도했다.

돌아온 관세음보살상은 높이 40cm 가량의 목제 좌상으로 17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음상은 다른 불상과 함께 히토요시(人吉)시의 오가키(小柿)지구의 관음당에 모셔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강가에 있던 관음당이 호우로 불어난 물에 피해를 입으면서 봉안되어 있던 2구의 불상이 모두 유실됐다.

마을 회장인 마츠부네 노부오 씨는 "피해를 입기 전엔 마을자치회에서 당번을 정해 월 1회 관음당을 청소하고 백중과 같은 날엔 예불을 모시는 등 마을의 신행활동의 중요한 장소"라고 전했다. 노부오 씨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 이 정신이 없어 불상이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수색할 여력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현의 야마에무라(山江村) 역사민속자료관에서 수해로 흩어진 불상들을 모아 전시회가 열렸다. 해당 자료관 측은 소재지 불명의 불상들을 보관, 관리하고 있었다.



사진출처=쿠마모토 신문

노부오 씨와 마을 주민들이 신문을 통해 전시회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료관을 방문했다. 마을주민이 가지고 있던 관세음보살상의 사진과 전시된 50여 구의 불상들을 대조한 끝에 거의 온전한 상태의 관음상을 찾아낼 수 있었다.

지난 16일, 본래의 관음당에 다시금 안치하는 행사에서 불상을 이운한 오히라 카즈아키 자료관장은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있던 오가키 지구는 강가임에도 수해가 적었다. 보살님께서 스스로 강에 흘러가시는 것으로 지키신 것 아니겠는가"라며 관음상을 안치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께서 **동성애는 참회할 수 없는 중죄**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불설우바새5계상경)

불교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 불교계의 스님들과 신도들도 부처님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가르침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일부 종단은 동성애자들의 활동을 지원한 사례도 있음
- **현재 입법이 추진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성별정체성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여, 남성도 여성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여성으로 인정되어 여성화장실을 이용하고, 여성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 만약 스님이 동성애와 성적지향 행위를 지지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으로 더 이상 스님이 아닙니다.**
-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대상으로 입법이 되면 **인류의 윤리 / 도덕, 종교적 믿음, 사회와 가정이 파괴될 것입니다.**
-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님이 의학적으로 밝혔으며, **불치병인 에이즈는 동성애가 주 감염경로입니다.**
- 지자체와 교육청의 인권조례와 일부 학교의 학칙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에이즈 위험이 있다"라고 사실을 말해도 신고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이 법 하나 만으로도 국민의 자유가 심각히 억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지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심각히 억압하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어머니! 자녀가 동성애자들의 유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www.nabuco.org

상임대표 박희도, 공동회장 김홍래 전공군참모총장, 이건호 방생법회 회장, 송재운 동국대명예교수, 송춘희 백련장학회 회장, 신윤희 전육군헌병감, 이석복 전 연합사참모장, 정두규 전 해군제독, 이재순 전 군군간호학교 교장, 임선교 전WFB 한국본부 회장, 박준 전조계사 신도회부회장

문의 02-2265-0570
전화 010-8242-5264

우리은행 1005-401-401246
예금주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